

평생교육 참여 동기가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적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김철호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The Effect of Participating Motives for Lifelong Education on the Releasing of Controlled Inferiority, the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and Voluntary Resocialization

Kim, Chulho

Department of Ad & PR,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가 평생교육 이용자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 보는데 있다.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는 소비자행동 중심의 외면적 동기와 자아활동 중심의 내면적 동기로 구분한 후, 외면적 관점은 실용적, 오락적, 관계적 이용 동기로, 내면적 관점은 자아실현, 자아존재, 자아참여 이용 동기로 구분 하였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변화는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적 재사회화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연구 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실용적 동기는 자아실현적 동기와, 오락적 동기는 자아존재적 동기와, 관계적 동기는 자아참여적 동기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에는 이용동기 중 실용적 이용 동기와 자아실현적 이용 동기가, 평생교육 참여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에는 이용동기 중 오락 적 이용 동기와 자아존재적 이용동기가, 평생교육 참여자의 자발적 재사회화에는 이용동기 중 관계적 이용동기와 자 아참여적 이용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평생교육, 참여동기, 통제된 열등의식, 유보된 욕망, 자발적 재사회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mpirical effect of participating motives for lifelong education on the releasing of controlled inferiority, the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and voluntary re-socialization. The motives for lifelong education were divided into an external viewpoint focusing on consumers' behaviors and an internal viewpoint based on activity of the ego. External motives were divided into pragmatic, entertaining, and relational motives, while internal motives were divided into self-realization, self-existence, and self-participation motiv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agmatic motive and the self-realization motive, the entertaining motive and the self-existence motive, and the relational motive and the self-participation motive are highly related to each other. It was found that the pragmatic motive and the self-realization motive affected the lifelong education participants' release of controlled inferiority relatively stronger, the entertaining motive and the self-existence motive affected participants'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relatively stronger, the relational motive and the self-participation motive affected participants' voluntary re-socialization relatively stronger.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e, Controlled Inferiority, Retained Desire, Re-socialization

Received 1 September 2014, Revised 18 October 2014
Accepted 20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Kim, Chulho (Cheongju University)
Email: philosea@cj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확산, 주 5일 근무 환경의 정착으로 인한 여유 시간의 증가, 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발전과, 의식의 성숙, 삶의 질 향상 욕구 등의 영향으로 자기 계발, 취미 활동, 여가 선용, 사회 참여, 정보의 획득과 활용, 은퇴 후 계획 등을 준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이 새롭게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실행에 힘입어 그 분야가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로 범주화되고 [1], 다시 각각의 범주가 구체적인 교육으로 세분화되면서 현재적·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심과 필요성 확산과 이들의 호의적 참여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분류와 정리는 다분히 평생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구조적 유목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이 기본 교육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적용이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고, 아울러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내용적 다양성 또한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은 그 기대의 범주가 예술, 문학, 역사, 문화, 철학, 레저, 스포츠 등 영역의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한편, ‘동기’가 사람들을 소통 활동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강력한 동인으로 기능함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제반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이끄는 강한 동인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동기’의 활성화가 ‘동기’ 인지(認知) 주체의 내적 갈등 해소와 현실적·잠재적 욕구 충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 참여 동기의 확인과 그 영향력의 재검토는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새롭게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하이테크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 환경의 변화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시각에서 교육,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소비자행동, 심리학, 미디어, 관련 산업 등에 기반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의 반영과 함께 평생교육의 실질적 주체자인 참여자의 이용 동기가 평생교육의 기획, 운영, 관리 등에 현실적이고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존재함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바,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융합적·학제적 접근의 필요성도 그 의미와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평생교육에서의 참여자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참여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관리적 입장에서 동기를 원인변수로 한 태도 변화의 예측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태도가 다분히 개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학제적인 분야임을 상기할 때,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 파악을 중심으로 한 태도 변화 예측은 쉽지 않은 만큼 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결과 변수로서의 평생교육 참여자 태도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많은 부분이 가시적인 결과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심리적 요인의 심층적 분석과 관련된 태도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환경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심리적 요인의 심층적 분석과 관련된 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 동기를 학제적 측면에서 유목화 하고, 나아가 이들 동기들이 평생교육 참여자의 내적 갈등, 현실적·잠재적 욕구와 관련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일생동안 참여할 수 있는 형식·비형식 교육과 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Lengrand[2]에 의해 그 개념이 정립된 후, 최근에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3]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교육 분야에서 핵심 개념의 하나로 자리 잡아 오고 있다.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교육 중심적, 시장 중심적, 학습자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교육 중심적 시각은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통해 그들이 가변적인 사회에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직적·수평적 교육 [4]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다.

시장 중심적 시각은 교육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규모 확대 및 이를 통한 교육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교육과 소비자로서의 학습자 간의 균형과 조화 유지와 상호지향적 혜택의 고려, 경쟁을 통한 교육산업의 질적 향상 유도 등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평생 교육이 민간 기관과 정부 기관의 협력[5,6]을 통해 실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시장 중심적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경쟁 체제에 기반을 둔 시장 경제 논리를 평생 교육에 적용, 궁극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경쟁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적 시각은 평생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자율성과 의지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 개개인의 평생 교육 관련 목표와 동기 및 욕구를 시간적, 상황적, 환경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정립 능력(Problem Defining Ability)과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Ability)을 키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 개선,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흐름을 짚어볼 때,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의 확인, 존재감의 인식, 자발적 사회 참여의 발현 역시 학습자 중심적 시각을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각은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7,8]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생교육을 조망하는 시각을 구조적인 편의 상 교육 중심적, 시장 중심적, 학습자 중심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평생교육의 기획,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들 세 시각은 모두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사회·학습자의 환경적·상황적 가변성에 맞춰 이들 장점을 시의 적절하게 통합·적용하는 것은 평생교육으로부터 원하는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편,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분류는 크게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과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되며,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은 다시 1)학교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초.중.고등학교), 2)원격 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3)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은 1)학교 형태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초.중.고등학교, 2)유.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3)대학(원) 부설 평생

교육시설, 4) 원격 형태 평생교육시설, 5)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언론 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지식·인력 개발형태평생교육 시설, 9)평생학습관으로 구분되어 있다[9]. 이 기준에 의하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경우는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 2013년 11월 현재, 유통업체 부설 문화센터는 총 34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61,744개 프로그램을, 총 959,399명의 학습자가 이용하고 있다[10].

2.2 평생교육 참여 동기

인간 활동에서의 ‘동기’는 행위의 잠재적 주체로 하여금 해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강한 동인(動因)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인간 활동에서의 동기의 확인과 이해는 활동 주체의 행위 참여 이유뿐만 아니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까지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 관찰과 거시적 조망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준다. 동일한 맥락에서, 평생교육에의 참여 동기는 평생 교육에 대한 학습 주체의 참여 의지를 활성화 시켜주는 원인과 관련되고 이러한 활성화의 동기로서의 원인은 인간 사회의 구조적 측면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과의 융합적 상호작용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바, 다분히 학제적·융합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Table 1>은 평생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학제적 관점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Perspective	
Education	-The actualization of the unification and switching between the vertical education system and the parallel education system centering on houses, schools, and society due to the change of human development levels. -The realistic symbiosis between the traditional school system with an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time and place and a practicality-based education program deviating from time and place. -The basing of the justification and perspective of necessity of education itself.

Economy	-The increase in time and disposable incom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e increase of appropriateness and th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s supply and deman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ociety	-The stabilization of an aging society. -The increase of life expectancy due to the increase of medical technique. -The spreading of desire and level of consciousness due to the systemization of advanced and universal welfare.
Culture	-The expansion of trade among different cultures due to the universaliz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The genera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increase of desire of cultural sharing based on diversity.
Marketing	-Targeting consumers who have increased available time due to the settling of a 5 working day per week system. -The continuous productification of services and ideas. -The increase of the program's strategic development due to the system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Consumer Behavior	-The increase of desire for hobbies in all generations. -The generalization of preparation for a second life after retirement. -The routinization, generalization and spreading of the desire for a better life.
Psychology	-The vitalization of reserved desire of elderly consumers -The desire to rest and break away from a tense competition-based life and work. -The desire for self-realization and the checking of one's ego. -The desire to release the previously controlled sense of inferiority
Communication	-The increase of new communication methods applying new communication tools. -The continuous activation of a communication environment focusing on mutual interaction
Media Industry	-The continuous appearance of up-to-date media and its increasing familiarization -The continuous marketing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media. -The increase of reorganization and unification among media industries.
Technology	-The omnipresence of a cyber world that overcomes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The generalization of a social structure based on high technology.

선행 연구는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를 활동지향형, 목적지향형, 학습지향형[11], 전문 지식 획득, 도피와

자극, 인지적 관심, 사회적 관계, 외적 기대감, 사회적 복리[12] 등으로 제시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가, 과제에 대한 개인적 의미[13], 학습자 참여[14], 자아 개념[15], 학습 경험[16]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 역시 학제적 측면의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탐색적 접근이지만, 평생교육을 학제적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 행동은 마케팅 관점에서의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개념과 교육·심리·사회학 관점에서의 자아 활동 개념을 융합적 측면에서 평생 교육 참여자의 행동에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2.2.1 소비자가치 지향행동 중심 외면적 관점

소비자 가치는, 소비자를 논리적 문제 해결자로 보아 온 실용적 가치 개념과 함께 소비자의 경험과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쾌락적 가치 개념을 제시한 연구 [17,18]와, 이들 소비자 가치가 교환 행위의 결과로서의 가치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환 행위 이전의, 소비자 하위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로서의 실용적 기대가치와 쾌락적 기대가치를 제시한 후속 연구들[19,20,21], 그리고 상호작용과 관계 중심의 최근의 미디어 환경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고려, 사회적 기대가치[22]와 관계적 기대가치[23] 등을 추가로 제시한 최근의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써 인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을 평생교육에 학제적으로 적용한, 평생 교육 이동 동기는 실용적 동기 (Pragmatic Motive), 오락적 동기(Entertaining Motive), 관계적 동기(Relational Motive)로 구분할 수 있다. 실용적 동기(Pragmatic Motive)는 정보의 추구, 지식의 습득, 새로운 것의 학습과 배움을 지향하는 동기로서, 선행 연구의, 교육을 통한 지식의 창출[24,25]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오락적 동기(Entertaining Motive)는 감정적 측면에서의 즐거움, 재미, 오락 등을 추구하는 동기로서, 선행 연구에서, 학습 참여에서의 흥미의 중요성을 지적한 연구[26],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흥미 개념을 제시한 연구[27] 등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관계적 동기(Relational Motive)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상호작용적 관계를

추구하는 동기로서, 공동체의 발전을 평생교육의 과정으로 본 연구[28] 등과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한다.

2.2.2 학습자의 자아활동 중심 내면적 관점

자아는, 삶의 주체로서의 ‘나’의 인지적·정서적 사유와 행동, 신념과 개성, 욕망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사유와 행위의 관장 주체이다. 따라서 자아에는 삶의 주체자인 ‘나’의 사유와 신념을 담고 서려는 욕망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이에 따라, 실체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사유와 신념은, 때때로 내재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아가 활용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된다. 자아가 이른바 그림자에 의한 실체의 잠식 현상에서, 행위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통제자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아는 사유와 욕망의 주체인 개인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의해 꾸준히 영향을 받을뿐더러, 개인으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아가 다차원적 특징을 지니며, 복수(複數)의 개념으로 존재하고[29], 지속적인 재조직화를 통해 가변성을 띄며[30], 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받고[31], 사회를 반영하며[32], 주변과 상호작용[33] 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자아의 개념은 특정 학문 분야의 고유 영역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학, 철학, 사회, 예술 등 인간 활동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서 널리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따라, 자아의 개념, 이론적 분류 등은 연구자의 관심 분야와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아의 개념적 구분의 다양성과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보편적 적용성과 활용성은 인간의 의식 및 행동 이해에 중요 변인으로 기능하는 ‘자아’ 자체를 학제적 측면에서, 즉, 자아와 관련된 인접 학문들과의 영향력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조망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 동기로서 학습자의 자아활동 중심 내면적 관점은, 자아실현 동기, 자아존재 동기, 자아참여 동기를 중심으로 조망할 수 있다. 자아실현 동기는 궁극적인 목표의 성취, 이상의 현실화, 꿈의 실현 등을 추구하는 동기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실현이 자기 결정의 주요 구성요소로서[34], 개인의 잠재력을 유지 혹은 높여주며[35], 완전함을 지향하는 노력[36]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자아의 존재 확인 동기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존재감의 긍정적 확인이 개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스로가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임을 느끼고[37],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38]를 하고, 타인에게 받는 존중[39]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자아참여 동기는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에의 참여와 어울림을 지향하는 동기이다. 선행연구는 사회와 조직에의 참여 활동이, 긍정적 삶의 변화를 이끌고[40], 자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41],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42]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낮은 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43]을 제시한다.

2.3 평생교육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변화: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충족, 자발적 재사회화

태도는 학습된 선유 경향[44]으로서, 교육, 심리,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사회학 등 우리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전공 분야에 따라 학습자, 수용자, 소비자 등의 용어로 환언되는, 소통과 정보의 대상 주체 이해를 위한 핵심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는 관리적 측면에서 현재적·잠재적 평생교육 참여자의 행동 추이를 이해·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바, 그동안 다양한 원인 변수와 함께 영향력의 지속적인 추적과 확인이 요구되어 왔다. 태도가 다분히 행위 주체 개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학제적인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 파악을 중심으로 한 태도 변화 예측이 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 변수로서의 평생교육 이용자의 태도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많은 부분이 가시적인 결과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바,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결과로서의 태도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은 성인 학습자가 그동안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해 왔던 열등의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는 열등의식을, 사회적 조건과 상태가 타인에 비해 낮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45]라고 정의하며, 열등의식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46]임을 설명한다. 이렇게 볼 때 평생교육을 통한 열등의식의 해소는, 첫째,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이

성인 학습자에 대한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따라 성인 학습자 스스로의, 희망 분야에 대한 배움의 실기(失期) 인식 및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주관적 열등의식이 평생교육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둘째, 새로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본인의 열등의식을 유발하는 경쟁자 대비, 앞선 경험과 정보의 습득 추구 행위 또한 사회적 인간의 열등의식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바, 평생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인간의 열등의식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생교육은 성인 학습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욕망을 인간 존재의 전제 조건으로 설명하는데[47], 이는 욕망이 일차적인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는 영원성과 능동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평생교육을 통해 충족되는 유보된 욕망은 성인 학습자가 오랫동안 경제적·시간적 여유 부족, 혹은 주변의 환경적·문화적 특성 등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해 왔던 희망 분야에 대한 체험과 지식 습득이 평생 교육을 통해 뒤늦게나마 충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어린 나이나 젊은 나이에 배움이 시작되는 분야를 평균보다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평생교육은 궁극적으로 성인 학습자의 자발적인 재사회화를 유도한다. 선행연구는 재사회화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며[48], 심리적 위기감과 관련되고[49], 평생 동안 진행되는 개념[50]임을 제시한다. 이는 평생교육의 개별적 목적이 지식의 습득이든, 즐거움의 경험이든,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이든 간에 평생교육에의 참여 자체가 본인의 의지와 희망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인 학습자 스스로가 본인이 선택한 배움과 교육을 통해 어떤 형태·수준, 혹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재사회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과 기회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학문 간 학제적·융합적 접근의 중요성과 선별적 적용

필요성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이중 학문에 근간을 둔 시각으로 유목화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측면의 학습자 태도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비록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평생교육 산업 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습 참여자 행동의 학제적 이해와 이를 통한 해당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기의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 변화 간의 관계와 영향력 확인을 위해 설정되었다.

- [연구문제1]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내면적 참여 동기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2]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3]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4]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자발적 재사회화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5] 평생교육의 내면적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6] 평생교육의 내면적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7] 평생교육의 내면적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자발적 재사회화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2 구성개념

본 연구의 잠재 변인은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이며,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중심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자아 활동 중심의 내면적 참여 동기로 구분하였다.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중심의 외면적 참여 동기는 실용적, 오락적, 관계적 동기로 구분하고, 실용적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정보와 지식 습득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 오락적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우선

적으로 추구하는 동기', 관계적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자아 활동 중심의 내면적 참여 동기는 자아실현, 자아 존재, 자아참여 동기로 구분하고, 자아실현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평소에 갖고 있던 꿈의 실현과 목표의 성취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 자아존재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존재가치 확인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동기', 자아참여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적 행동과 실천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은, 본 연구가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태도 변화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통제된 열등기제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적 재사회화로 구분하고, 통제된 열등의식은 '성인 학습자 스스로가 그동안 통제해온 내면의 열등의식', 유보된 욕망은 '성인 학습자 스스로가 그동안 유보·유예해온 내면의 욕망', 자발적 재사회화는 '성인 학습자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려는 의지와 행동' 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3.3 조사 설계 및 설문참여자 설정

본 연구가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를 독립 변인으로, 참여자의 태도 변화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찾아보고자 하는 바, 정량적인 조사 방법의 하나인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편의 샘플링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서울 지역 유통업체 문화센터에 1개월 이상 다닌 경험이 있는 4050세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4050세대를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여 선정한 이유는, 비록 평생교육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요 학습 대상으로서,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력을 갖춘 중년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1개월 이상 수강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실적인 표집의 어려움 해결 방안과 함께, 비록 1개월 수강 경험자라 할지라도 수강 전에 충분히 수강의 동기와 이유를 스스로 검토·확인한 후 수강·참여라는 행동으로 실행했을 것인 바, 본 연구의 참여 동기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 후,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72개의 설문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 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이 정량적 결과 도출을 위해 사용되었다. <Table 2>는 최종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Demographic Data for Respondents

Demographic	Item	Number	Percentage
Gender	Male	112	41.18
	Female	160	58.82
Age	40s'	123	45.22
	50s'	149	54.78
Duration of Participation (Month)	1~3	82	30.15
	4~6	66	24.26
	7~9	45	16.54
	10~12	48	17.65
	13~	31	11.40

3.4 척도의 개발

3.4.1 평생교육 참여 동기

평생교육 참여 동기로서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중심의 외면적 참여 동기에 대한 측정 항목은,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중심의 선행연구[51,52]와 실용적 기대가치, 쾌락적 기대가치 중심의 선행연구[53,54], 그리고 관계적 기대가치 중심의 선행연구[55]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실용적, 오락적, 관계적 동기로 유목화하여 구분한 후, 각각 4개 항목, 7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은 3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요인의 명확한 분류를 위해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이 실시되었다. 각 요인별로 요인 적재량이 모두 0.7 이상인면서, 세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7.9, 12.6, 9.13으로 나타나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중심의 외면적 참여 동기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관계적, 실용적, 오락적 참여 동기 요인의 Cronbach 계수가 각각 0.89, 0.88, 0.84로 측정되어 세 요인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중심의 외면적 참여 동기 구성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External Motive for Participating Lifelong Education

External Motive	Questions	Factor Loading		
		F1	F2	F3
Relational Motive	RE1 I expect to experience communion with other people through lifelong education.	.880		
	RE3 I expect to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people through lifelong education.	.862		
	RE4 What I expec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the construction of a mutually interactive network.	.836		
	RE2 What I wa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the sharing of something by associating with other people.	.824		
	Eigen Value	17.9		
	Cumulative Percentage	32.5		
	Cronbach's α	0.89		
Pragmatic Motive	PR2 I expect to earn necessary knowledge through lifelong education.		.871	
	PR4 What I expec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the obtaining of information.		.860	
	PR3 The learning of something new is what I wa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851	
	PR1 What I want though lifelong education is to learn things that I can apply in the real world.		.841	
	Eigen Value		12.6	
	Cumulative Percentage		55.5	
	Cronbach's α		0.88	
Entertaining Motive	EN4 Lifelong education must be fun.			.848
	EN2 What I expec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joy.			.814
	EN1 Enjoyment is a reason why I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809
	EN3 What I wa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an experience of entertainment.			.775
	Eigen Value			9.13
	Cumulative Percentage			72.0
	Cronbach's α			0.84

평생교육 참여 동기로서 자아 활동 중심의 내면적 참여 동기는 자아실현, 자아존재, 자아참여 동기 요인으로 구분한 후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자아실현의 경우, 레저를 통한 자아실현을 측정한 선행연구[56]와 자아실현을 정서적, 업무적, 도덕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선행연구[57]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 항목을 구성하였다. 4개 항목, 7점 라이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자아존재의 경우, 선행연구[58,59]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4개 항목, 7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아참여의 경우, 참여의 지속성을 측정한 선행연구[60]와 참여 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61]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4개 항목, 7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은 3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요인의 명확한 분류를 위해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이 실시되었다. 각 요인별로 요인 적재량이 모두 0.7 이상인 면서, 세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7.3, 10.3, 5.91로 나타나 자아 활동 중심의 내면적 참여 동기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자아실현, 자아존재, 자아참여 동기 요인의 Cronbach 계수가 각각 0.88, 0.86, 0.78로 측정되어 세 요인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자아 활동 중심의 내면적 참여 동기 구성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Internal Motive for Participating Lifelong Education

Internal Motive	Question	Factor Loading		
		F1	F2	F3
Self-Realization	SR4 Through lifelong education, I expect to fulfill my dream.	.875		
	SR1 The achievement of the goal I always thought of is what I expect through lifelong education.	.846		
	SR3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is a process in which I find out what I want.	.842		

	SR2 I expect to be able to do what I want to do through lifelong education.	.823		
	Eigen Value	17.3		
	Cumulative Percentage	35.7		
	Cronbach's α	0.88		
Self-Existence	SE4 I want to feel my existence through lifelong education.		.836	
	SE2 What I want from lifelong education is certainty about my values.		.833	
	SE3 What I expect from lifelong education is a confirmation about myself.		.818	
	SE1 I want to feel that I am a meaningful person through lifelong education.		.817	
	Eigen Value		10.3	
	Cumulative Percentage		56.9	
	Cronbach's α		0.86	
Self-Participation	SP3 I want to feel that I am not left out through lifelong education.			.781
	SP4 What I wa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to become a part of a community.			.777
	SP2 I expect a sense of belonging from lifelong education.			.753
	SP1 What I want from lifelong education is the feeling that I am not isolated from society.			.733
	Eigen Value			5.91
	Cumulative Percentage			69.1
	Cronbach's α			0.78

3.4.2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충족, 자발적 재사회화

본 연구의 측정변인은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적 재사회화이다. 이에 따라,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에 대한 측정 항목은, 열등감을 신체, 사회, 가정, 학업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연구[62]와, 신체, 사회, 지적, 가정, 성격 등으로 구분하여 열등감을 측정된 연구[63]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3개 문항 7점 라이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유보된 욕망 충족은 욕망을 충동적 개념으로 본 연구[64]와 욕망을 이성적 판단과 관련된 개념으로 본 연구[65], 그리고 인간의 행·불행을 욕망 충족 여부로 설명하는 욕망충족이론[66]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3개 문항 7점 라이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자발적 재사회화에 대한 측정 항목은, 재사회화의 핵심 요소에 대한 연구[67]와 은퇴를 중심으로 재사회화를 측정한 연구[68]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3개 문항 7점 라이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은 3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요인의 명확한 분류를 위해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이 실시되었다. 각 요인별로 요인 적재량이 모두 0.7 이상이면서, 세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3.4, 10.3, 5.91로 나타나 평생 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 측정을 위한 세 요인에 대한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적 재사회화의 Cronbach 계수가 각각 0.95, 0.91, 0.86로 측정되어 세 요인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 구성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은 3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요인의 명확한 분류를 위해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이 실시되었다. 각 요인별로 요인 적재량이 모두 0.7 이상이면서, 세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3.4, 10.3, 5.91로 나타나 평생 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 측정을 위한 세 요인에 대한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적 재사회화의 Cronbach 계수가 각각 0.95, 0.91, 0.86로 측정되어 세 요인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 구성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Participants' Attitude Change toward Lifelong Education

Attitude Change	Question	Factor Loading		
		F1	F2	F3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CI3 Lifelong education changes my thoughts that I do not have anything to boast about compared to others.	.959		
	CI2 Lifelong education changes my perception that I am less talented than others.	.952		
	CI1 Lifelong education changes my feelings that my life is comparatively less ahead than others'.	.941		
	Eigen Value	13.4		
	Cumulative Percentage	35.1		
	Cronbach's α	0.95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RD1 Lifelong education makes the joyful things that I had reserved into reality.		.932	

	RD3 Lifelong education lets me enjoy the things that I had suppressed for personal reasons.		.906	
	RD2 Lifelong education allows me to fulfill the fun things that I had postponed.		.906	
	Eigen Value		9.96	
	Cumulative Percentage		61.3	
	Cronbach's α		0.91	
Voluntary Re-socialization	VRS3 Lifelong education helps me actively adjust to society.			.894
	VRS1 Lifelong education lets me personally adjust to a changed environment.			.885
	VRS2 Lifelong education lets me fit into a changing environment with my own will.			.872
	Eigen Value			8.93
	Cumulative Percentage			84.7
	Cronbach's α			

3.4.3 타당성 검토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 측정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잠재적인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247.3$, $df=237$, $p=0.31$, $NFI=0.926$, $RFI=0.913$, $IFI=0.997$, $TLI=0.996$, $CFI=0.997$, $RMSEA=0.013$).

구체적으로, 소비자까지 지향 행동 중심의 동기 구성항목과 자아 활동 중심의 동기 구성 항목 간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β)은 모두 0.8 이상($p<.05$)으로 나타나 이들의 개념 타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집중타당성의 경우, 소비자까지 지향 행동 중심의 동기와 자아 활동 중심의 동기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모두 기준치인 0.5 이상, 개념신뢰도(CR) 역시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은 본 연구의 잠재변인 구성 요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6>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the Latent Variables

Latent Variable	Item	SRW	SE	CR	AVE
Pragmatic Motive	PR1	0.786	0.192	0.933	0.778
	PR2	0.827	0.182		
	PR3	0.794	0.195		
	PR4	0.822	0.177		
Entertaining Motive	EN1	0.768	0.207	0.912	0.722
	EN2	0.754	0.213		
	EN3	0.704	0.223		
	EN4	0.777	0.226		
Relational Motive	RE1	0.888	0.138	0.939	0.794
	RE2	0.743	0.215		
	RE3	0.817	0.164		
	RE4	0.799	0.169		
Self-Realization	SR1	0.798	0.202	0.929	0.766
	SR2	0.779	0.202		
	SR3	0.804	0.201		
	SR4	0.834	0.186		
Self-Existence	SE1	0.762	0.177	0.932	0.775
	SE2	0.789	0.172		
	SE3	0.766	0.179		
	SE4	0.790	0.172		
Self-Participation	SP1	0.668	0.184	0.911	0.720
	SP2	0.658	0.195		
	SP3	0.730	0.177		
	SP4	0.693	0.180		

확인적 요인분석 후, 잠재변인들 간의 개념적 차별성 파악을 위한 판별타당성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Table 7>은 상관계수, 분산추출지수, 결정계수 비교를 통한 잠재변인들 간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대각선의 계수는 분산추출지수(AVE)이고, 대각선 윗부분은 상관계수, 대각선 아랫부분은 결정계수이고, 결정계수가 분산추출지수 보다 작게 나타나 구성 개념 간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확보되었음을 보여준다.

<Table 7> Result of the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on the Latent Variables

	PR	EN	RM	SR	SE	SP
PR	0.778	0.084	0.191	0.411	0.068	0.231
EN	0.007	0.722	0.319	0.261	0.390	0.163
RM	0.036	0.102	0.794	0.161	0.394	0.416
SR	0.019	0.068	0.026	0.766	0.205	0.320
SE	0.005	0.152	0.155	0.042	0.775	0.375
SP	0.053	0.027	0.173	0.102	0.141	0.720

4.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잠재변인(평생교육 참여 동기)과 관찰변인(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충족, 자발적 재사회화)을 대상으로 한 구조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519.5$, $df=462$, $p=0.33$, $NFI=0.909$, $RFI=0.896$, $IFI=0.989$, $TLI=0.987$, $CFI=0.989$, $RMSEA=0.021$).

[연구문제1]의 검증을 위해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내면적 참여 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용적 참여 동기는 자아실현 동기($r=.411$, $p<.05$), 오락적 참여 동기는 자아존재 동기($r=.390$, $p<.05$), 관계적 참여 동기는 자아참여 동기($r=.416$, $p<.05$) 상대적으로 정(正)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2]의 검증을 위해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실용적 동기가 다른 외면적 참여 동기에 비해 통제된 열등기제 해소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55$, $t=5.39$, $p<0.05$). 한편, [연구문제5]의 검증을 위해 평생교육의 내면적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아실현 동기가 다른 내면적 참여 동기에 비해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17$, $t=4.58$, $p<0.05$). <Table 8>은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와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문제3]의 검증을 위해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이용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오락적 동기가 다른 외면적 참여 동기에 비해 유보된 욕망 충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66$, $t=5.27$, $p<0.05$). 한편, [연구문제6]의 검증을 위해 평생교육의 내면적 참여 동기와 이용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재 동기가 다른 내면적 참여 동기에 비해 유보된 욕망 충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29$, $t=5.85$, $p<0.05$). <Table 9>는 평생교육에의 참여 동기와 유보된 욕망 충족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8> Result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the Controlled Inferiority

Path	β	t	p
Pragmatic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355	5.39	<.05
Entertaining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274	-4.02	<.05
Relational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125	-1.85	<.05
Self-Realization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317	4.58	<.05
Self-Existence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211	3.02	<.05
Self-Participation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061	.836	<.05

<Table 9> Result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the Retained Desire

Path	β	t	p
Pragmatic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154	-2.42	<.05
Entertaining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366	5.27	<.05
Relational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062	.915	<.05
Self-Realization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152	-2.25	<.05
Self-Existence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429	5.85	<.05
Self-Participation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175	-2.37	<.05

[연구문제4]의 검증을 위해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와 이용자의 자발적 재사회화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관계적 동기가 다른 외면적 참여 동기에 비해 자발적 재사회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09$, $t=5.93$, $p<0.05$). 한편, [연구문제7]의 검증을 위해 평생교육의 내면적 참여 동기와 이용자의 자발적 재사회화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아참여 동

기가 다른 내면적 참여 동기에 비해 자발적 재사회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36, t = 5.43, p < 0.05$). <Table 10>은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와 자발적 재사회화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0> Result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the Voluntary Re-socialization

Path	β	t	p
Pragmatic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147	-2.36	<.05
Entertaining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142	2.18	<.05
Relational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409	5.93	<.05
Self-Realization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151	2.28	<.05
Self-Existence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111	-1.63	<.05
Self-Participation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436	5.43	<.05

5. 논의 및 시사점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형식·비형식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교육’의 의미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욕구와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교육, 심리, 문학, 예술, 문화, 철학, 스포츠 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인, 삶의 질 향상, 함께 사는 사회적 인간의 모습·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아우르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평생 교육이 교육, 시장, 학습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시스템의 열린 장(場)으로 기능하는 바, 통합적 시각에서의 적절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 기획, 관리, 운영과 교육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유지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산업의 질적 제고 못지않게 학습자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학제적 접근 또한 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구문제1]과 관련된,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내면적인 자아실현, 자아존재, 자아참여 동기가 외면적인 실용적, 오락적, 관계적 동기와 각각 상대적으로 강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동

기가 학습자의 태도를 추적·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학습자 태도의 분석이 향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콘텐츠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바, 관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유발되는 동기와 학제적 성격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기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연구문제2] 및 [연구문제5]와 관련된, 평생교육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에 실용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정보, 지식 등의 습득이 평생교육을 매개로 스스로 통제해 왔던 열등의식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내면적인 동기로서 자아실현의 욕구 또한 개인의 열등의식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습자가 인지하는 배움의 실기(失期)가 열등의식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쟁 환경에서의 앞선 경험과 정보 습득 지향 행위가 내재된 열등의식 해소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바, 실용적 동기가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과,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 또한 내재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3] 및 [연구문제6]과 관련된, 평생교육 참여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에 오락적 동기와 자아존재 동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꿈꾸어 왔지만 경제적·시간적·환경적인 이유로 그동안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개개인의 희망 분야를 늦게나마 평생교육을 통해 경험하며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의지와 행동에 의해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욕망이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동기로부터도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문제4] 및 [연구문제7]과 관련된, 평생교육 참여자의 자발적 재사회화에 관계적 동기와 자아참여 동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평생교육 참여자의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교육 참여자의 관계적 동기와 자아참여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1 기반의 마케팅 환경, 상호작용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네트워크 중심의 미디어 환경 등 현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호작용적 관계 중심의 사회문화적 트렌드가 평생교육 분야에도 학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고령화 시대의 현실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소비자 행동과 심리학 기반의 학제적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살펴본 점, 둘째, 평생교육 참여자 이용 동기와 그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 평생교육의 관리적 측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셋째, 평생교육 참여자 중심의 실증적 조사를 통해, 비록 탐색적인 접근이지만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확인·개발·개선·유지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넷째,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 향후 평생교육 참여자의 이용 동기와 연계된 가시적 효과 측정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평생교육의 외면적 참여 동기를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중심으로 제한하여 접근한 점, 둘째, 자아 활동 중심의 내면적 동기를 자아실현, 자아존재, 자아참여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 셋째, 비록 논문의 부제로 언급하였지만, 평생교육을 문화센터를 통한 교육에 한정하고, 아울러, 프로그램의 차이에 따른 학습자 태도의 가능한 차이를 통제하지 못한 점, 넷째, 연구의 참여자를 문화센터 1개월 이상 경험자로 폭넓게 선정 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비록 학제적 접근에 기반 한 탐색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고, 정량적 연구의 특성 상 다양한 변수를 한 연구에 모두 포함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에 기인한 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의 고려,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영향력의 명확한 통제와 구분, 교육 참여 기간의 조정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이 예측되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of Lifelong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 [2] Paul Lengrand,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1970.
- [3] Heung-Kweun Yang & Kwan-Su An, A Study on Enhancement of the Lifelong Learning Function at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Studies. Vol. 7, No. 3, pp. 191-213, 2006.
- [4] Su-Wook Kim, Eun-Hwan Lee, Min-Ho Joo, & Jong-Il Choi, A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 of Lifelong Education in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35, No. 4, pp. 211-224, 2003.
- [5] Byung-Hun Ko, A Study on Alternative Programs of Lifelong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The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1, No. 1, pp. 145-173, 2005.
- [6] Ji-Hye Lee & Jae-Eun Chae, An Alternative to Current Lifelong Learning Policies for Low-incom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2, No. 1, pp. 105-126, 2006.
- [7] B. J. Zimmerman & D. H. Schunk, Motivation and Self Regulated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New Jersey: Mahwah, 2008.
- [8] S. G. Paris & A. H. Paris, Classroom Applications of Research on Self 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Vol. 36 No. 2, pp. 89-101, 2001.
- [9][10] Statistics of Lifelong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 [11] C. O. Houle, The Inquiring Mind,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 [12] K. Patricia Cross,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p. 86, 1992.
- [13] J. Brophy, Synthesis of Research on Strategies for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Educational Leadership, Vol. 45, pp. 40-48, 1987.
- [14] D. H. Schunk, Learning Theories: An Educational Perspective, New York: Merrill, 1991.
- [15] D. J. Stipek, Motivation to Learn: From Theory to Practice, (2nd ed.), Needham Heights: Allyn and Bacon, 1993.
- [16] Raymond J. Wlodkowski,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A Comprehensive Guide for Teaching All Adults(revise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9.
- [17] Barry J. Babin & William R. Darden, & Mitch

- Griffin, Work and/or Fun? Measuring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9, pp. 644-656, 1994.
- [18] Barry J. Babin, & William R. Darden, Consumer Self-Regulation in a Retail Environment, *Journal of Retailing*, Vol. 71, pp. 47-70, 1995.
- [19] Chulho Kim, Basic Perspectives on Consumers' Web-Related Communication & Behavior: The Concept of Value Expectation and Interactive Communication,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SM, 2004.
- [20] Chulho Kim, The Influence of Ethical Intention and Value Expectation about Advertising on the Preference of Advertising Appeal Typ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 19, No. 6, pp. 221-236, 2008.
- [21][22] Chulho Kim, The Effect of Ad Exposure Motivation and Creative Techniques on Attitude toward Ad and Reinforcing Ad Exposure Motivati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 Vol. 34, pp. 469-480, 2012.
- [23] Chulho Kim, Scales on Value Expectation to The Olympics and The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as Motivators for Building Local Brands' Identities,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 11, No. 2, pp. 149-160, 2013.
- [24] Tae-Joong Gahng, A Review of Lifelong Education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6, No. 1, pp. 21-37, 2000.
- [25] Gab Bu Cha, A Study on the Lifelong Education for Win-Win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14, No. 1, pp. 25-42, 2001.
- [26] Raymond J. Wlodkowski,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A Guide to Improvement Instruction and Increasing Learner Achieve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pp. 137-139, 1985.
- [27] K. Ann Renninger, Suzanne Hidi, & Adreas Krapp, *The Role of Interest in Learning and Development*, L. Erlbaum Associates, 1992.
- [28] Soong Hee Han, Market vs. Public Domain: A Forgotten Issue in Korean Lifelong Education Policy Making, *The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9, No. 3, pp. 1-26, 2003.
- [29] Soon-Hyung Yi, The Disparity of Identity Between the Self of the Cyber-space and the Self of the Virtual-spa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0, No. 4, pp. 59-71, 2002.
- [30] R. F. Baumeister & B. J. Bushman, *Social Psychology and Human Nature*, Belmont: Thomson Wadsworth, 2008.
- [31] D. T. Gilbert & T. D. Wilson, *Prospection: Experiencing the Future*, *Science*, Vol. 317, pp. 1351-1354, 2007.
- [32] V.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Cornell University Press : New York, 1974.
- [33] J. P. Hewitt, *Self and Society: A Symbolic Interactionist Social Psychology*, 2000.
- [34] M. L. Wehmeyer, K. Kelchner, & S. Richards,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elf-Determined Behavior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Vol. 100, pp. 632-642, 1996.
- [35]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70.
- [36] F. J. Buruno, *Adjustment and Personal Growth*.(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3.
- [37]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70.
- [38] S. Harter,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Y.: The Guilford Press, 1999.
- [39] J. M. Joseph, *The Resilient Child Preparing Today's Youth for Tomorrow World*, New York: Plenum Press, 1994.
- [40] Myeong-Soo Jeon & Sun-Hee Song, Effects that

-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fluences i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Life-chang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8, pp. 438-448, 2012.
- [41] Jong-Pil Kim, Kang-Young Song, Soon-Yong Chang, Relationships Amo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Leisure Sports Participants of Police Organiz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0, No. 9, pp. 410-420, 2010.
- [42] M. Ragheb & C. A. Griffith,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8, pp. 248-258, 1982.
- [43] H. Rainey, Public management: Recent Research in The Political Context and Managerial Roles, Structures and Behaviors, *Journal of Management*, Vol. 15, pp. 229-250, 1989.
- [44] G. W. Allport, Attitudes. In C. Murchison (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798-844,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1935.
- [45] A. Adler,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ited by H. and R., New York Basic Books, 1956.
- [46] P. Gilbert, C. Irons, K. Olsen, J. Gilbert, & K. McEwan, Interpersonal Sensitivities: Their Links to Mood, Anger, and Gender, *Psychology Psychother*, Vol. 79, pp. 37-51, 2006.
- [47] Jin-Hee Yoo, Su-Hyeon Kim Through Lacan: The Subject and The Desire Focused on the Heroines of the <Love and Ambition>, <My man's Woma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9, pp. 126-135, 2012.
- [48] Roberta S. Sigel, *Political Learning in Adulthood*, Chig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4, 1989.
- [49] P. T. Costa & R. R. McCrae,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Leu to Same Issues in Adult and Old Age,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NY: Academy Press, 1980.
- [50] Sun-Hye Kim, & Byung-Wook Choi,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Humanities Therapy of the Mutual Consilience for Released Convicts: Focused on a Resocialization Program for Released Convicts, *Studies in Humanities*, pp. 403-430, 2012.
- [51] Barry J. Babin & William R. Darden, & Mitch Griffin, Work and/or Fun? Measuring Hedonic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9, pp. 644-656, 1994.
- [52] Barry J. Babin & William R. Darden, Consumer Self-Regulation in a Retail Environment, *Journal of Retailing*, Vol. 71, pp. 47-70, 1995.
- [53] Chulho Kim, *Basic Perspectives on Consumers' Web-Related Communication & Behavior: The Concept of Value Expectation and Interactive Communication*,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SM, 2004.
- [54] Chulho Kim, The Influence of Ethical Intention and Value Expectation about Advertising on the Preference of Advertising Appeal Typ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 19, No. 6, pp. 221-236, 2008.
- [55] Chulho Kim, The Effect of Ad Exposure Motivation and Creative Techniques on Attitude toward Ad and Reinforcing Ad Exposure Motivati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 Vol. 34, pp. 469-480, 2012.
- [56] J. Gould, D. Moore, F. McGuire, & R. A. Stebbins, Development of the 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40, pp. 47-68, 2008.
- [57] Dong-Joon Kim, & Dae-U, Hwang,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Self Realization According to Type of Life Style,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7, No. 2, pp. 39-60, 2012.
- [58]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59] Eunmo Sung, & Gyunhe,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Happines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Traits of Adolescent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4, pp. 177-202, 2013.

[60] K. A. Machlei, & R. D. Wilson, Emotional feelings and attitudes toward advertisement: The role of brand familiarity and repetition, Journal of Advertising, Vol. 17, No. 3, pp. 27-35, 1988.

[61] Chang-Sug Kim & Soo-Il Choi, The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 Elderly Peop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315-326, 2012.

[62] Suk Hee Cheon & Bo Kyoung Cha, Inferiority,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ntrapment,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4, No. 4, pp. 343-351, 2008.

[63] Hee Sook Kim, Young Sun Chae, & Gyeong Ran Park, Effects of a Self-Growth Program on Self-esteem, Inferiority, and Peer-Relationships in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6, No. 1, pp. 1-9, 2010.

[64] Russel W. Belk, The Fire of Desire: A Multisited Inquiry into Consumer Pas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0, No. 3, pp. 326-351, 2003.

[65] Utpal M. Dholakia, Mahesh Gopinath, Richard P. Bagozzi, & Rajan Natarajan, The Role of Regulatory Focus in the Experience and Self-Control of Desire for Tempta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16, No. 2, 163-175, 2006.

[66]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No. 3, pp. 542-575, 1984.

[67] P. T. Costa, & R. R. McCrae,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Leu to Same Issues in Adult and Old Age.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NY: Academy Press, 1980.

[68] Yeon-Hee Se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hlete's Retirement Expectation, Psychological Sense of Crisis,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socialization,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1, No. 4, pp. 393-406, 2012.

김 철 호(Kim, Chulho)



- 1989년 2월 : 홍익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경희대학교 광고 전공(정치학석사)
- 2004년 12월 :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Mass Communication 전공 (언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융합적 광고, 상호작용적 미디어, 기대가치, e-Learning

- E-Mail : philosea@cju.ac.kr